



목운 오견규 화집 출판기념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관선재 갤러리 전경

# 50여 년 화업 반추, 목필로 담아낸 봄의 정경

오는 27일까지 목운 오견규 화집 출판기념 개인전

‘돌아·봄’ 주제...매화·대나무 등 30여점 수묵 선배



그리고 여름을 돌아봅니다. 농부가 밭을 고르듯 밭을 다듬고 먹을 갈았습다. 그리고 5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막상 희수(壽壽)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작고 없 달아진 벼루와 헌붓, 저를 닮은 작품 몇 점만 남았습니다. 이에 화집을 만들고 작은 작품으로 저를 돌아보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목운(木雲) 오견규 화백의 50여 년 화업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화집 발간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오는 27일까지 관선재갤러리에서 열린다. ‘돌아·봄’ 전시 주제가 갖는 중의적인 의미처럼 이번 전시는 그간 화업 인생을 망라하면서도 봄의 정경을 한껏 품은 30여점 다양한 수묵 작품들을 선

“봄 입니 다. 물 흐 르 고 꽃 피는 시간입니 다. 지나 간 겨울 과 가을, 그리고 여름을 돌아봅니다. 농부가 밭을 고르듯 밭을 다듬고 먹을 갈았습다. 그리고 5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막상 희수(壽壽)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작고 없 달아진 벼루와 헌붓, 저를 닮은 작품 몇 점만 남았습니다. 이에 화집을 만들고 작은 작품으로 저를 돌아보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보고고 있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1일 전시장에서 오 화백을 만났다. 목운, '나무 위를 떠다니는 구름'이라는 그의 호처럼 작품들은 목가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대나무 풍경을 담은 '청풍'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수묵에 채색을 더한 자연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맑은 바람에 움직이는 대나무 숲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화집 표제작으로도 사용된 '자전거 길'은 오 화백뿐만 아니라 전시장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도 관심을 얻는 작품이다. 온통 먹으로 채워진 화폭 가운데 노란색 옷을 입은 자전거 탄 사람의 모습은 인간 고독과 같은 우리 삶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작나무 숲에서 홀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담긴 작품 '숲, 자작나무'는 이달 초에 완성한 최근작으로, 늦가을 영주의 한 자작나무 숲에서 본 풍경을 모티브로 그려냈다. 그의 그림은 담백 하면서도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다.



작품 '청풍' 앞에 선 오견규 화백

“송나라 때 화원(畫員)이 발달했는데, 그때 네 가지 품계가 있었어요. 신품(神品), 묘품(妙品), 능품(能品), 일품(逸品) 순인데, 그중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편안한 그림’이라는 뜻의 ‘일품’이에요. 일품이 신품을 넘어선다는 의미죠. 그림은 편안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또 자연스러운 풍경이 제일 어렵기도 하죠. 그림이란 욕심을 내면 과하게 되니까요. 나무에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밖에도 전시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광활한 논밭의 풍경이나 산수 등 2000년대를 관통하는 그의

대작들을 비롯해 단조로운 먹색 바탕에 채색을 더한 매화 등 자연 풍경, 선(禪)의 정신을 내포하는 선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은 화집 첫머리 '매화를 담은 화가 목운(木雲) 오견규'라는 글을 통해 “그림의 격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는 지금 꽃피고 물흐르는 시간 앞에 서있다”며 “오늘날에도 꽃이 전전화화의 뜻을 이어가는 목운의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儒道, 사람의 길’...안병걸 명예교수 특강

고봉선생 송덕회, 오늘강학회 기대승 선생의 뜻을 기리고 학덕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고봉선생 송덕회(이

사장 천득업)가 25일 오전 10시 광주향교에서 강학회를 갖는다. 매년 4회에 걸쳐 일반대중을 상대로 유학 관련 강학회를 개최하고 있는 송

덕회는 이번 행사에서 안병걸 안동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유학, 유도(儒道): 사람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앞서 송덕회는 지난달 23-24일 광주 월봉서원과 안동 도산서원에서 ‘퇴고양선생의 오래된 왕복서간을 톺

아보다’를 주제로 한 강학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송덕회는 광주지역과 안동지역 학자, 유림이 함께 하는 강학회를 통해 유학의 뜻을 기리고 두 지역 간 학문적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신영희 작가 초대전 '우울라우트'가 진행 중인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전경

## ‘우울라우트’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까?

신영희 초대전, 5월4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외국어를 배우는 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그 나라 언어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스스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더 명확해진다.

독일어를 익히는 과정을 모티브로 삼아 다양한 매체의 작품활동을 펼친 신영희 작가 초대전이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남구 백서로 79-1)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은 ‘우울라우트, Umlaut’다. 독일어 모음 가운데서도 이중모음을 의미한다. 전시는 익히기 어려운 독일어 발음이 외국인이라는 조건을 부각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한 신체화 과정을, 말과 의식의 관계를 입의 형태나 혀의 위치로 가시화했다.

‘정확하게 말하기’를 주제로 한 이번

작업 결과물은 ‘입’과 ‘그 안쪽’을 2차원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사진, 드로잉을 비롯해 작가가 정제한 ‘우울라우트’를 발음하기 위한 연습영상 등으로 나타난다. 세 종류의 매체 작업은 ‘우울라우트 발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에 주목하면서 말배우기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작가는 “이번 작업은 언어와 신체성에 관한 나의 질문과 관심을 시각화한 것이다”며 “언어를 배우고, 사용한다는 것은 정해진 규칙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 사이 오랜 시간을 거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전시는 5월4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 판소리, 전통의 명맥을 잇다

광주시립창극단, 오는 27일 올해 첫 '판소리 감상회'

소리꾼의 소리와 고수 북장단으로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의 2024년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감상회'는 2022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선보인 기획공연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창극단 장악부 단원들의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정승기(장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춘향가 중 박석치 대목'으로 시작된다. 이몽룡이 장원급제 후 거지 행색을 하고 남원으로 내려와 농부들을 만나 지역 정세를 묻고, 광한루를 바라보는 심정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

두번째 무대에서는 이정주(장악부 상임차석) 소리꾼의 가야금 병창을 만나본다. 단가 '호남가'와 '흥부가 중 제비노정기', '적벽가 중 화룡도' 대목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김다운(장악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단가 '강상풍월'과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선사한다. '강상풍월'은 강이나 호수 풍경을 노래하면서 한가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을 표현한 노래이며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황성에서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에 심봉사가 그곳을 찾아가는 내용의 소리다.

이날 공연은 김준영(기악부 상임단원) 고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로 전석 1만 원이다. /최명진 기자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들여 진합니다!

**3低**  
지방  
저칼로리  
저칼로리

**4高**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 비타민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시보신 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HS 호성유통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